

# 국내 컴퓨터 산업 새별로 등장

—듀얼 노트북 세계 최초 개발—



## 정 찬 익

(주) NTK 대표이사

국내 컴퓨터 산업계에서 20여명에 불과한 중소기업이 세계적인 업체들을 쫓히고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업체가 있다.

바로 국내 노트북 컴퓨터시장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노트북 PC개발 전문업체인 (주)NTK.

최근 플로피디스크와 CD-ROM Drive를 내장한 초소형 노

트북 PC를 개발 국내외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다소 생소하게 여겨지는 이 회사는 노트북 PC에 관한 한 최고의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노트북 PC에 관한 모든 노하우와 사업권을 자금력이 풍부한 국내 다른 업체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서울 강

### 회사개요

설립일 : 1990년 8월 7일

대표이사 : 정 찬 익

본사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  
KOEX 빌딩 2F-07

전화번호 : 02)551-6106

매출액 : 300억원(95년예정)

자본금 : 10억원

남구 삼성동 159 KOEX빌딩 2F-07에 자리잡고 있는 NTK 정찬익 사장의 말이다.

90년 (주)NTK를 설립, 자본조달이나 경영기법도 여타회사와는 다르다. 그러나 오늘의 (주) NTK가 있기 까지는 최고의 기술을 추구한 덕분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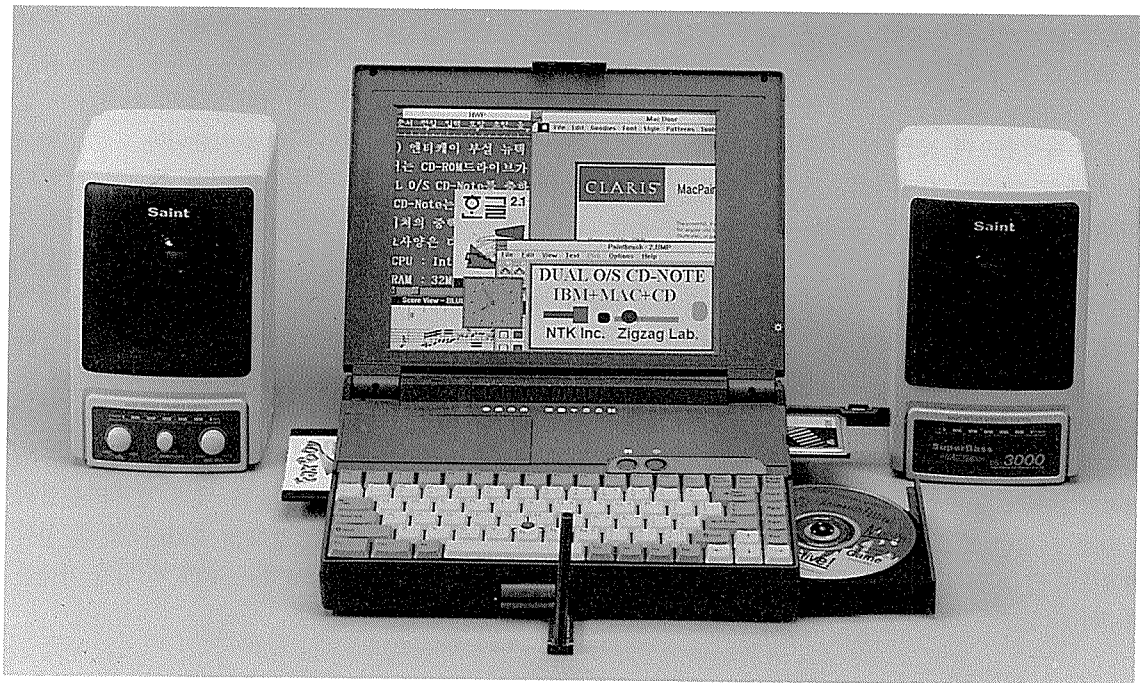
최근 많은 기업들이 경쟁력으로 세계 일류 제품 개발이라는 지상과제를 내세우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주)NTK는 창립초기부터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최고가 아니면 살아남기 힘들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에서 출발했다고 한다.

현재 세계 PC시장은 미국 애플사의 매킨토시계종과 역시 미국업체인 IBM사의 IBM호환계종으로 양분돼 있다.

이 두개의 계종은 서로 사용하는 CPU(중앙처리장치)칩과 운영체제(OS)가 다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공유할 수 없었다.

매킨토시계종에만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따로 있고, IBM 호환계종에 맞는 소프트웨어가 따로 있었다.

80년대 초반 개인용컴퓨터가 등



장한 이래 이 '벽'은 넘을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됐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정사장은 이런 벽을 훌쩍 뛰어 넘었다.

지난 90년부터 연구를 시작, 93년 9월 과학기술처의 중핵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지 4개월만에 두기종의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듀얼 O/S 노트북 PC를 개발한 것이다.

정사장은 두기종에 사용되는 CPU칩을 하나의 회로기판에 장착하기만 하면 될 것이 아니냐는 기본적인 생각을 차근차근 구체화시켜 나갔다.

물론 소프트웨어의 종류에 따라 '교통정리'를 해주는 ASIC(주문형반도체)칩의 개발이 필수적이었지만 이는 결코 장애가 되지 않았다.

정사장 자신이 기초물리학을 전공한 물리학박사출신이기 때문에 ASIC칩의 개발은 어렵지 않았다.

그래서 마침내 지난해 1월 듀얼 O/S노트북PC의 신제품 개발에 성공했고 6월에는 당시 체신부로부터 유망중소정보통신기업으로 선정됐으며 11월에는 과학기술처로부터 국산신기술 인정마크인 KT마크까지 획득했다.

"IBM이나 애플이 '듀얼O/S노트북PC'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이미 장악한 시장을 그들 스스로 흘트리 놓을 필요가 없죠. IBM호환기종과 매킨토시기종의 운영체제를 현대의 컴퓨터로 쓸 수 있도록 한 이 제품은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외국으로부터 잇따르고 있는 주문이 바로 단적인 예라고 밝힌 정

사장은 "국내업체들은 앞서고 있는 외국업체들이 미처 신경을 쓸 수 없는 틈새를 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사가 최근에 개발에 성공한 최소형 노트북PC는 플로피디스크에 CD-ROM을 함께 내장한 것으로 플로피디스크만 갖고 있는 미국 IBM사의 노트북PC에 비해 두께가 무려 35mm나 얇다.

또한 IBM PC 프로그램과 매킨토시 프로그램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노트북 하나로 음악, 영화, 위성TV 등의 감상은 물론 전화응답, 공장자동화 제어까지 가능토록한 세계 최초의 역작이다.

또한 기존 노트북PC의 하드디스크의 표준형인 2.5인치 외에 3.5인치도 함께 내장가능토록 함

으로써 같은 가격에 용량을 두배로 높인 것이 특징이다.

현재 미국, 일본 등 20개국의 특허를 획득했으며 NTK의 특허를 채택한 업체는 전세계적으로 2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연간 200만대의 노트북PC가 NTK 특허를 이용, 출하되고 있는 것이다.

NTK는 자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사업권을 국내 업체들에게 이전할 계획도 갖고 있다.

직접 개발한 초소형 노트북을 판매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좀 의아했다.

이야기인즉 NTK는 연구개발에만 집념하겠다는 정찬익 사장의 말이다.

뉴텍지그재그연구소란 이름도 창조와 독창성을 강조하기 위해 정사장이 직접 고안한 작품이라고 한다.

「NTK는 제조업체가 아니고, 연구개발 전문업체입니다.」

(주)NTK 부설 뉴텍지그재그연구소가 개발한 멀티미디어 듀얼 O/S 노트북PC도 사업권을 국내 기업에게 이전시킬 계획이 연구개발 전문업체라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 주는 것이다.

이는 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가

연구개발과 영업판매활동을 동시에 하는 것은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정찬익 사장의 지론이다.

정사장은 이어 앞으로 컴퓨터 기능과 디자인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만큼 「컨셉개발」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국내 PC업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부품의 국산화가 아닌 「부가가치의 국산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계 최초로 개발한 초소형 노트북 기술로 국내 컴퓨터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NTK가 되길 기대한다.

